

2018년 12월 0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연준, 베이지북 통해 경기 자신감 표명 지속 대 중국 강경파 피터 나바로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다”

무역협상과 베이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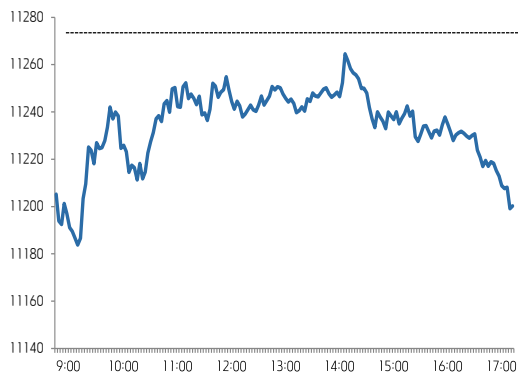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미 증시 급락과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더불어 건설, 소재 업종이 미-중간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2% 가까이 하락 주도(독일 -1.19%, 영국 -1.44%, 프랑스 -1.36%)

글로벌 주식시장은 ①미-중 무역분쟁 ②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 주목. 먼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음. 전일 미 증시가 급락하자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 국장은 “시장은 협상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하며, 어떠한 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주장. 더불어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라고 주장.

한편, 중국 상무부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구체적인 합의는 명확한 시간과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등 미국과 중국 정부는 무역분쟁 관련 실무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에 그쳤고,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 협상에서 논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시장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또한 이어지고 있음.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도 중요한데 FOMC 주요 참고자료이기 때문. 연준은 이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발표. 다만, 달라스와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전 발표 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고 언급. 관세는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고, 타이트한 노동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 한편, 관세와 강달러가 기업들의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이 많아져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반증. 이를 감안 19 일 있을 FOMC 에서 연준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9 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독일 DAX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률(D-1)	지역	지수	변동률(D-1)
지수	종가			종가	
KOSPI	2,101.31	-0.62	홍콩	26,819.68	-1.62
KOSDAQ	701.12	-1.06	영국	6,921.84	-1.44
DOW	25,027.07	휴장	독일	11,200.24	-1.19
NASDAQ	7,158.43	휴장	프랑스	4,944.37	-1.36
S&P 500	2,700.06	휴장	스페인	9,012.20	-0.55
상하이종합	2,649.81	-0.61	그리스	656.92	-0.01
일본	21,919.33	-0.53	이탈리아	19,328.70	-0.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

불확실성 완화 기대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59 계약)에 힘입어 0.45pt 상승한 272.3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은 1,11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연준 또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해 최근 위험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증시는 하락했으나, 미국 지수 선물이 시간외로 0.6%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한편, 전일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전월(50.8)보다 크게 개선된 53.8로 발표되는 등 중국의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호적이다. 지난 3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 감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이런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여전히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소매판매 증가

11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50.8)보다 개선된 53.8로 발표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50.7)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10월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5%)을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1.7% 증가하는 등 양호한 수치다.

미국 30년물 모기지금리는 지난번 발표치(5.12%)보다 낮아진 5.08%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대비 2.0% 증가에 그쳤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상승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OPEC 은 공급량을 감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 이라고 주장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한편, 일부 투자 은행은 OPEC 정례회담에서 확실한 감산에 합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로 전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인 데 힘입어 소폭 상승 했다. 신흥국 환율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파운드화는 장중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다. 11 일 있을 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집권 보수당 원내 대표가 합의안이 부결시 ‘노딜 브렉시트’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미 채권시장은 휴장이었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율을 언급 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소폭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2%, 철근은 0.59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89	-0.68	+5.17	Dollar Index	97.055	+0.09	+0.28
브렌트유	61.56	-0.84	+4.18	EUR/USD	1.1342	-0.01	-0.21
금	1,242.60	-0.32	+1.04	USD/JPY	113.23	+0.41	-0.40
은	14.582	-0.40	+0.88	GBP/USD	1.2732	+0.10	-0.73
알루미늄	1,969.00	-0.25	+1.92	USD/CHF	0.9979	+0.05	+0.38
전기동	6,175.00	-0.55	-0.40	AUD/USD	0.7266	-0.98	-0.55
아연	2,618.00	+1.12	+6.77	USD/CAD	1.3377	+0.87	+0.77
옥수수	384.25	-0.13	+2.95	USD/BRL	3.8657	+0.43	+0.30
밀	518.00	-0.86	+1.27	USD/CNH	6.8607	+0.15	-1.15
대두	913.50	+0.19	+2.58	USD/KRW	1114.10	+0.80	-1.10
커피	105.95	-0.89	-6.98	USD/KRW NDF1M	1113.25	+0.25	-0.8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14	휴장	휴장	스페인	1.456	-2.70	-8.40
한국	2.035	-5.70	-11.70	포르투갈	1.792	-1.50	-7.30
일본	0.066	-0.80	-3.40	그리스	4.135	-8.20	-18.40
독일	0.277	+1.40	-7.20	이탈리아	3.058	-9.50	-19.60